

장성호관광지를 '원더랜드'로 ... 장성군, 공모사업 도전

복합놀이공간·시네마 특화 거리·야간 경관 등 동화 속 나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출사표 ... 군, 송정마을서 사업설명회

장성군의 장성호 관광지가 사계절 관광명소 '원더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장성군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해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 '원더랜드'로 변신시킬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원더랜드(wonderland)는 '동화 속 상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장성호관광지의 관광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네마 특화 거리', '야간경관', '어린이 복합놀이공간' (자이언트 트리-에어 바운스) 등을 조성해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나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호관광지 인근 송정마을을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공모 추진 과정', '사업 목표-구상',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정마을 한 주민은 "장성호관광지는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상당하다"며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사계절

장성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시·군 균형 발전사업이다.

앞서 지난 15일 장성에서 열린 전남도 정책 비전 투어에서 김한중 장성군수는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선정을 요청하자 김 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있던 장성호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새로운 장성관광시대를 열 수 있도록,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해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명소 '원더랜드'로 개발할 계획이다. 장성호관광지 전경. <장성군 제공>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치유의 고장' 입지 굳혔다

5일간 22만명 방문... 다양한 힐링 체험 방문객 호평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막을 내렸다.

장흥군은 축제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통합의학 브랜드를 활용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2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건강과 치유의 고장'으로서 장흥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주최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열렸다.

통합의학적 상담과 진료뿐만 아니라 심신을 제

충전하도록 한층 강화된 다채로운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짜임새 있게 구성된 테마별 체험관은 단연 인기였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셀프케어 측정 등 의로기기 체험을 선보였다.

양·한방과 통합의학이 어우러진 '통합의학관', 전남도 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한 '건강증진관'에서도 다양한 건강 체험이 이어졌다.

뷰티 테라피, 마사지 체험, 의로기기 및 참가기업 정보 제공을 운영한 '힐링테라피&의료산업

관', 홍채검사, 전신마사지 등 통합의학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안대체의학관'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모든 체험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해 관람객 부담은 낮추고 행사장 주요구간에 쉼터와 화장실을 다수 배치해 관람객 편의는 높였다.

신규 조성된 맨발걷기 황토여성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키즈체험존 등 모든 연령층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쓴 점도 호평을 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통합의학을 지역 브랜드로 활용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원예작물 재배 현장 기술 지원 강화

비료 주기·병해충 방제·밭아 초기 생육 불량 방지 등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농가를 찾아 무의 생육상태를 살피고 관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가을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해 25일까지 농업 현장에서 작물 재배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장 채소인 무, 배추가 정식 후 고온으로 인해 생육이 지연되었으나 9월 말부터 예년 기온으로 회복 중이고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의 경우는 정식기 및 초기 생육 단계이다.

이에 맞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료 주기(웃거름 주기-결구 시기 엽면 시비), 병해충 방제(무름병-뿌리혹병-나방류 등), 마늘, 양파 밭아 및 초기 생육 불량 방지 등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설원에 농가에서는 외부에 서식하던 해충이 따뜻한 실내로 유입되는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와 총채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시 감염증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 출입구, 측창, 천창 주변에 끈끈이 트랩, 방충망 등을 설치하고 해충이 발견된다면 적용약제를 약 5-7일 간격으로 3-4회 방제해야 한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 시설원에 토마토-딸기 등 주요 원예작물이 재배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가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안정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친환경 함평 옥동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영산강 상류에 자연경관 수려 마을 돌담길·한옥 정원 보전 농가 10곳 이상 친환경농업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에 선정된 함평군 대동면 옥동마을 돌담길.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대동면 옥동마을이 2024년 하반기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마을 내 10호 이상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친환경 인증면적이 10ha 이상,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과수-채소 작물의 경우 농가 5곳 이상 인증 받은 면적이 1ha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옥동마을은 영산강 상류 고막천이 흐르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을로, 마을 내 35농가가 33ha의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94%)을 받았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공동체 활동을

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돌담길과 한옥 정원 또한 잘 보전되어 있다.

옥동마을은 이번 선정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 받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과 4000만원의 활성화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함평군은 함평을 백련마을과 석성마을, 손불면 교촌마을, 대동면 강운·홍지마을과 월송마을, 해

보면 운암마을, 신광면 신여마을 등 현재 총 9개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덕 옥동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친환경 보존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해 계기로 더 많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보하고, 농촌관광 명소로 마을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전남도-(주)에코팜테크 종자 연구개발 투자협약 체결

담양군은 최근 전라남도, 농업회사법인 (주)에코팜테크와 투자협약(사진)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성면 봉황리 191번지 일원 투자액 50억원 규모의 양파 및 채소 종자 연구소 신축에 대한 투자협약으로, 전남도와 담양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주)에코팜테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하게 된다.

(주)에코팜테크는 연구소 신축 외에도 2026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해 세미나실과 직원 숙소, 종자 연구를 위한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신축해 종자 품평회와 포럼 개최, 국내·외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에 있는 양파 종자 개발회사 (주)씨드온(대표 손현율)과 함께 양파 종자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으로, (주)씨드온은 이를 위해 분사 담양군 이전을 결정했다.

(주)씨드온은 2000년대 초부터 양파 재배 사업



을 시작해 양질의 양파 품종개발로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북방국가에 내한성 양파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양파 종자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원태완 대표는 "지역 인력 고용 창출과 양파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로 담양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으로 투자를 결정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 갈대축제 속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

26·27일, 11월1·2일 골목상권 이벤트...페이백·음악회 등

강진군이 '골목상권 첫걸음 이벤트'를 26일부터 27일, 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서성안길 일대에서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3월 소외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남도 주관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공모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로 진행된다.

이벤트 구간은 강진 읍내의 버스터미널~강진 개인택시-금호상가 거리다.

해당 구역에서는 앞서 6월 강진 수국길 축제 기간에 골목상권 첫걸음 이벤트를 한차례 진행했으며, 강진을 중심 상권에 비해 다소 침체 중이던 골목상권 구역에는 폭우와 무더위를 뚫고 3일간 약 2500명이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벤트는 골목형 상점가 페이백 이벤트, 캐릭터 솜사탕 체험, 작은 음악회 등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4일간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골목형 상점가 페이백 이벤트는 강진군 관내에서 소비한 3만 원 이상의 카드영수증 제출 시 추첨을 통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강진사랑상품권을 1만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한다.

쿠폰 추첨과 더불어 10만원 이상의 카드 영수증 제출 시 대형 유통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게임을 통해 골목상권 1만원 쿠폰과 먹개비 5000원 자유 쿠폰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갈대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과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 서성안길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전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앞으로도 강진군의 모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재난관리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나주시가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9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실적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으며 나주시는 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등 5개 분야에

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재난대응 기금관리,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 확대, 자연재난 사전 대비체계 구축, 기관장의 재난상황 대응역량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주시는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선제적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